



이 뭐 꼬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항상 자신과의 고통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리하듯이 난 나의 작업실에서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유독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어쩌보면 그림 그리는 일을 관계성이 일상의 모든 것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작업실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일체의 생각 멈추고 들어갈 곳은...

말할 것이다. 절대 자유로운이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재(自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 있으면서도 무슨 번뇌방식은 그리 많는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보니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 가 한다.

말할 것이다. 절대 자유로운이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재(自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 있으면서도 무슨 번뇌방식은 그리 많는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보니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 가 한다.

김부건 (서양화가)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②

단풍이 노랗게 물든 모습이 멀리 보이는 하늘 한구석 노을처럼 아름답다. 아침햇살에 비친 세상은 이제 막 풍광을 해치고 나온 어부의 인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새들도 따스한 햇살을 시샘하듯 허공을 마음껏 비행하고 있었다.

작했다. 그건 남편이 느끼는 경이감이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남편의 미소를 본 것은 이때부터였고 삶에 따스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믿음 그리고 불교 그제서야 나는 이 두가지 명제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다 되는 것이 불교임을"



대로 구해 귀를 기울이면 어느날 한가로이 구산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들던 나는 가슴 수 없는 희열속에 빠져 들었다. 구산스님의 얼굴은 물론 구산스님의 이해에

"나와 사는거요 부처님과 사는거요" 남편이 물었다

언젠가 '내 남편을 부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부처님께 그토록 서원했던 대상인 내 남편이 바로 내가 찾던 부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때 난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남편은 나를 수행시켰고 나를 책망해준 것만이었기 때문이다.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나는 구산스님이 법에서 한때 이발사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고향도 나와 같았고 터구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작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을 접하면서 비유일에 관계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일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때 나는 '일심하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면 나도 구산스님과 같은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구산스님의 법문집을 구하게 된 것도 불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나는 구산스님이 법에서 한때 이발사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고향도 나와 같았고 터구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작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을 접하면서 비유일에 관계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일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때 나는 '일심하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면 나도 구산스님과 같은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구산스님의 법문집을 구하게 된 것도 불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나는 구산스님이 법에서 한때 이발사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고향도 나와 같았고 터구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작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을 접하면서 비유일에 관계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일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때 나는 '일심하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면 나도 구산스님과 같은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구산스님의 법문집을 구하게 된 것도 불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이 부끄럽기만 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내 남편 불법에 귀의하게 해달라'며 나름대로는 불법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던 지난 날을 되돌아 보았다.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나는 늘 불법에 대해 의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말 내게 가야 할 길인가?'라는 자문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던 터였다.

'Of these the first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on four grounds. He is rapacious, he gives little and expects much, he does what he has to do out of fear, he pursues his own interests.'

'On four grounds the man who pays lip-service only to a friend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He makes friendly professions as regards the past. He makes friendly professions as regards the future. The only service he renders is by his empty sayings. When the opportunity for service arises he shows his

unreliability.' 네가지 이유에서 친구에게 친구에 발한 말만 하는 사람을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그

이 생각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인다. "On four grounds the flatterer is to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a friend. He approves your bad deeds as well as your good deeds. He praises you to your face, and in your absence he speaks ill of you."

대의 선행 뿐만 아니라 악행도 찬성한다. 그는 명칭에서는 그대를 칭찬하지만 그대가 없는 자리에서는 헐담을 한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성경 ⑦

는 과거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미래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가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공허한 말밖에 없다. 정말 도와야 할 일

네가지 이유에서 아첨꾼은 적을 가장한 친구로 생각된다. 그는 그

"profession" 전문직, 연명, 선언. "render" ~을 갖다, 제공하다.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음, 미망, 기망. "speak ill of" 나쁘게 말한다. ~의 헐담을 하다.

(박미영기자)

Advertisement for WODTEC wood products. Features a snowy forest background and a modern living room interior. Text includes: '우드텍 자연주의', '따뜻함이 있는 곳, 우드텍이 있는 곳', '온돌 전용 나무마루재 우드텍',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거실에서 주방·온돌방까지 원하는 곳 어디나...', '주요 시공실적' lis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ODTEC and LSI.